

디지털타임스

2010. 7. 23.

KAIST 유희준 교수실 '공식 TI랩' 선정

미 본사에서 미래형 CPU 연구비 지원 받아

KAIST(총장 서남표)는 전기및전자공학과 유희준 교수 연구실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로부터 '공식 TI랩(Lab)'으로 선정, 연구비와 3억원 상당의 연구장비를 지원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유 교수는 하나의 칩상에 수십 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집적하는 미래형 CPU를 개발하고 있는데, TI와의 연구협력으로 지능형 컴퓨터의 핵심기술인 매니코어 프로세서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유 교수는 면적을 적게 소모하며 계산 속도가 뛰어난 아날로그 회로와 전력소모가 적고 정밀도가 높은 디지털 회로를 한 개의 칩으로 하는 혼합형 회로를 기반으로 인체의 뇌를 모방하는 신경회로망을 설계했다. 이를 매니 코어 프로세서에 삽입해 인간 뇌의 종합적인 지능을 단순 처리해 기존 프로세서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1일 유희준 교수(왼쪽서 두번째)와 박현욱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장(오른쪽), TI사 유희경 한국지부 반도체 영업부장은 KAIST에서 '공식 TI랩' 선정 현판식을 가졌다.

유 교수는 "TI랩 선정을 계기로 미래 CPU를 국내 기술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